

# 대법원 2013다67587 손해배상[기]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관실(02-3480-1451)

대법원(주심 대법관 박상옥)은 2018. 11. 29. [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\(미쓰비씨중공업 주식회사\)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, 피고\(미쓰비씨중공업\)의 상고를 기각하여, 피고가 피징용 피해자들 1인당 8,0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시켰음](#)(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3다67587 판결).

이 사건은 2000. 5. 1. 제기된 소송으로서, 원고들은 1944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국민징용령에 따라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임. 제1, 2심에서는 원고들이 패소하였으나,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09다22549 판결(**환송판결**)은 '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'는 취지로 판단하였음.

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**대법원 2018. 10. 30.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**(피고가 '신일철주금'인 사건)과 동일함.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와 마찬가지로,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'[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](#)'으로서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음.